

## GF(2<sup>m</sup>)의 정규기저를 사용한 D-H 형 공용키이분배 시스템

°이 창순\*, 문상재\*\*  
\*대구공업전문대학, \*\*경북대학교

### A D-H type Public Key Distribution System using a Normal Basis in GF(2<sup>m</sup>)

°Chang Soon LEE\*, Sang Jae MOON\*\*  
\*Daegu Technical Junior College, \*\*Kyungpook National Univ.

#### Abstract

Several variants of the Diffie-Hellman public key distribution are examined, and a simple and relatively secure public key distribution protocol is introduced. Using a normal basis of GF(2<sup>m</sup>), this protocol is implemented, and simulated in software. A program is developed, whereby a normal basis is effectively searched for fast multiplication in GF(2<sup>m</sup>).

#### I. 서 론

공용키이 암호법을 이용하면 관용 암호법에 비해 두 통신자의 인증, 세션키의 생성 및 키이관리 등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1] 대표적인 공용키이 암호법으로는 D-H(Diffie-Hellman) 방법[2] 과 RSA[3] 방법 등이 있다. RSA 방법은 합성수 modulus 역승을, 그리고 D-H 방법은 유한체 GF(q), q는 소수 혹은 소수의 멱, 에서 역승을 이용한다. 전자에서는 통신자마다 서로 다른 modulus 를 가지는 반면에 후자는 모든 가입자들이 동일한 유한체를 사용하므로 실제적인 구현에 효과적이다.

D-H 방법을 구현하는데서도 유한체의 정규기저(normal basis)를 이용하면 고속으로 역승을 할 수 있다.[4,5] GF(q)의 승산기를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q 를 2 의 멱수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고속처리를 위해 승산기내의 EX-OR gate 수가 최소가 되는 정규기저의 사용이 요구된다.[6]

이러한 정규기저의 발굴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보다 효과적인 발굴 알고리즘의 개발이 요구된다. Peterson 은 GF(2<sup>m</sup>) 에서 m ≤ 16 까지 기약다항식, 원시다항식 및 정규기저 유무에 대하여 분류하였다.[7] m ≤ 15 까지 원시다항식 및 정규기저를 갖는 원시다항식의 갯수를 조사한 연구도 있다.[8] 그리고 Vanstone 등은 어떤 특정한 조건들을 가진 m 에 대하여 최적 정규기저(optimal normal basis)를 구하였다.[6]

본 연구에서는 유한체에서의 역승을 사용하는 여러 D-H 형 공용키이분배 프로토콜들의 문제점을 비교 고찰하고, 개선된 공용키이분배 프로토콜에 대해 알아본다. 개선된 알고리즘을 GF(2<sup>m</sup>)의 정규기저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한다. 여기에 고속 역승을 위한 정규기저의 발굴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발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정규기저로 구현한 개선된 공용키이분배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한다.

## II. D-H 형 키 분배 프로토콜

D-H 방법의 원형에서 두 통신자 A 와 B 가 각각  $(X_A, Y_A = a^{X_A} \text{ mod } q)$  와  $(X_B, Y_B = a^{X_B} \text{ mod } q)$  를 가지고 세션키  $K_{AB} = a^{X_A \cdot X_B} \text{ mod } q$  를 생성한다. 그러나 D-H 방법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공통키  $K_{AB}$  를 암호화에 사용한다면 다음의 문제들이 발생한다. 공통키를 발생시킬 때마다 같은 키가 생성되므로 모든 세션키들이 동일하다. 따라서 한번만이라도 세션키가 불법유출되면 더 이상 두 통신자간의 비밀 정보교환은 불가능하다. 또한 세션키 노출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통신자들은 암호문이 분석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비밀 및 공개키를 변환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통신망 가입자가 많을 경우 키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그 대책으로는 매번 서로 다른 세션키를 생성시키는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키관리 센터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을 경우에는 키관리 센터에서는 비밀 및 공개키를 이용하여 모든 세션키를 생성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 센터가 모든 암호문을 복호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불법 침입자가 키관리 센터로부터 필요한 비밀키를 불법채취하여 암호문을 분석할 수 있다.

D-H 방법에서 생성된  $K_{AB}$  에 시간 변수  $i$  를 도입한  $(K_{AB})^i$  을 세션키로 사용하면 세션키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다른 시간 변수  $i+j$  에 대한  $(K_{AB})^{i+j}$  와  $(K_{AB})^i$  를 안다면 곧  $K_{AB}$  가 해독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두 통신자가 각각 임의의 불규칙 변수  $R_A$  와  $R_B$  를 발생시켜 교환하여 세션키로  $K' = (K_{AB})^{R_A} \cdot (K_{AB})^{R_B}$  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K'$  만 알수 있으면 제삼자  $C$  가 적법한 통신자  $B$  로 가장해서  $A$  와  $K'$  를 세션키로 공유 할 수 있다. 즉 적법 통신자  $A$  가 세션키를 생성하기 위하여  $B$  에게  $R'_A$  를 보내면 이때  $B$  로 가장한  $C$  는  $R_A + R_B - R'_A$  를 응답한다. 그러면  $C$  가 알고 있는  $K'$  를 생성하여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의 대책으로는 세션키의 재사용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포함 시키든지, 상호 교환되는 불규칙 변수  $R_A$  와  $R_B$  를 다른 가입자가 모르게 변형시켜 교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Yacobi<sup>[9]</sup> 는 보다 보안도가 높은 D-H 형 키 분배 프로토콜을 제시하였다. 두 통신자  $A$  와  $B$  는 각각 비밀 키  $X_A$  와  $X_B$  그리고 공개 키  $Y_A$  와  $Y_B$  를 가지고 있다. 세션키를 생성하기 위하여  $A$  와  $B$  는 각각 불규칙 임의의 정수  $R_A$  와  $R_B$  ,  $0 < R_A , R_B < q$  , 를 발생시키고  $W_A = R_A + X_A$  와  $W_B = R_B + X_B$  를 서로 교환한다. 최종적으로 각 통신자는  $K_{AB}$  ( $A$  의 경우  $K_{AB} = (a^{W_B} Y_B^{-1})^{R_A} = a^{R_A R_B} \pmod q$ ) 를 공통키로 생성하여 사용한다. 여기서는 독립적이고 또한 서로 다른 세션키가 생성되므로 D-H 방법을 원형대로 적용했을 때의 첫번째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두번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키관리 센터에서 공개적으로 교환하는  $W_A$  에서  $X_A$  를 빼면  $R_A$  를 알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R_B$  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Yacobi 의 프로토콜에서 공개키이  $a^{S_A}$  와  $a^{S_B}$  대신에  $a^{-S_A}$  와  $a^{-S_B}$  를 각각 공개하면 역수 계산이 없어져 보다 개선될 수 있다.

Yacobi 의 방법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보안도도 더 높은 프로토콜을 소개한다.[10] 그 전체 구성은 3 단계로 이루어지며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통신자 A 와 B는 각각 비밀키이  $S_A$  와  $S_B$  를 발생하고  $P_A$  와  $P_B$  를 공개한다. 여기서  $P_A = a^{S_A}$  이고  $P_B = a^{S_B}$  이다.

둘째 A 와 B는 각각 불규칙 정수  $R_A$  와  $R_B$  를 발생시켜  $X_A = a^{R_A}$  와  $X_B = a^{R_B}$  를 구한 후  $Z_A = X_A \cdot K_{AB}$  와  $Z_B = X_B \cdot K_{AB}$  를 계산하여 공개된 전송망으로 서로 교환한다. 여기서  $K_{AB} = (P_A)^{S_B} = (P_B)^{S_A}$  이다.

셋째 두 통신자는 각각 동일한 키  $Z_{AB} = (Z_B \cdot K_{AB}^{-1})^{R_A} = (Z_A \cdot K_{AB}^{-1})^{R_B} = a^{R_A \cdot R_B}$  를 얻는다.

위의 프로토콜에서는 각각의  $R_A$  와  $R_B$  만 같지 않으면 생성되는 모든 키들이 서로 다르다. 또한  $S_A$  와  $S_B$  가 노출되어도 세션키는 분석되지 않는다. Yacobi 방법에서는 비밀키를 알면 불규칙 정수를 즉시 알아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먹송하여 전송하기 때문이다.

제 IV 장에서 위의 프로토콜에 정규기저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로 구현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한다.

### III. 정규기저 발굴

정규기저를 발굴하기 위하여는 먼저  $GF(2^m)$ 를 구성할 수 있는 기약다항식을 구한 후 그 다항식이 정규기저를 갖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그 정규기저의 승산행렬

에서의 1 의 수도 조사되어야 한다. 이 과정은 많은 시간이 요구되므로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요구된다. 소개하는 알고리즘은 conjugates를 이용하여 minimal다항식을 구하는 방법으로 기약다항식을 발굴한다. 이 방법은 GF(2<sup>m</sup>)에서 conjugates를 이루는 원소들의 다항식만 쉽게 구할 수 있으면 기약다항식의 고속 발굴 작업에 이용될 수 있다.[11] 따라서 2의 지수승에 해당하는 각 원소를 먼저 구한후 이 원소들을 이용하여 필요한 conjugate원소들을 직접 구한다. GF(2<sup>m</sup>) = { 0, 1, a, a<sup>2</sup>, . . . , a<sup>m-1</sup>}에서 임의의 원소 a<sup>i</sup>의 기약다항식을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원소 중에서 0, 1, a, a<sup>2</sup>, . . . , a<sup>2<sup>m-2</sup></sup> 까지의 원소를 구한다.

둘째 a<sup>2<sup>0</sup></sup>, a<sup>2<sup>1</sup></sup>, a<sup>2<sup>2</sup></sup>, . . . , a<sup>2<sup>m-1</sup></sup>를 구한다. (a<sup>2<sup>k</sup></sup> = a<sup>2<sup>k-1</sup></sup> · a<sup>2<sup>k-1</sup></sup>) 관계를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셋째 a<sup>i</sup> = a<sup>1<sup>r-1</sup>2<sup>r-1</sup>1<sup>r-2</sup>2<sup>r-2</sup>... + 1<sup>1</sup>2<sup>1</sup> + 1<sup>0</sup>2<sup>0</sup></sup> (1<sub>j</sub> ∈ GF(2))로 표현 가능하므로 둘째에서 구한 a<sup>2<sup>k</sup></sup>를 이용하여 a<sup>i</sup>를 구한다.

넷째 a<sup>i2<sup>1</sup></sup>은 a<sup>i</sup> · a<sup>i</sup> = a<sup>i2<sup>1</sup></sup>로부터 구한다. 마찬가지로 a<sup>i2<sup>2</sup></sup>는 a<sup>i2<sup>1</sup></sup> · a<sup>i2<sup>1</sup></sup> = a<sup>i2<sup>2</sup></sup>로부터 구한다. 계속해서 a<sup>i2<sup>m-1</sup></sup>까지 구한다.

다섯째 넷째까지에서 구한 각 원소들에 대하여 식을 전개하여 a<sup>i</sup>의 기약다항식 i(a<sup>i</sup>)를 구한다.

위에서 구한 기약다항식의 근들이 서로 일차독립이면 정규기저가 존재한다. 즉 다음 식 (3.1)에서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GF(2<sup>m</sup>)내의 임의의 원소는 정규기저를 사용하여 표현될 수가 있다.

$$\begin{pmatrix} a^{2^{m-1}} \\ a^{2^{m-2}} \\ \vdots \\ a \end{pmatrix} = A \cdot \begin{pmatrix} a^{m-1} \\ a^{m-2} \\ \vdots \\ a \end{pmatrix} \quad (3.1)$$

정규기저로 표현된 어떤 원소를 b<sub>0</sub>a<sup>2<sup>0</sup></sup> + b<sub>1</sub>a<sup>2<sup>1</sup></sup> + b<sub>2</sub>a<sup>2<sup>2</sup></sup> + ... + b<sub>m-1</sub>a<sup>2<sup>m-1</sup></sup>라 하면 이

원소의 자승은  $b_{m-1}a^{2^0} + b_0a^{2^1} + b_1a^{2^2} + b_2a^{2^3} + \dots + b_{m-2}a^{2^{m-1}}$  가 되어 실제로 각 항의 계수를 오른쪽 순환이동 시킨 것과 같다.

#### IV. 공용키이분배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II 절에서 소개한 공용키이 분배 프로토콜을, 정규기저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여 공통 세션키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II 절 후반부의 첫째 과정에서 세째 과정까지에 해당한다.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편이상 Mersenne 소수인  $m = 61$  를 선택하여 유한체  $GF(2^{61})$  을 사용한다.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GF(2^{61})$  에서의 승산기와 와 공용키이 생성 알고리즘은 C-언어로 구현하였으며 32 bit CPU Concurrent Computer MC6600 에서 수행하였다.

그림 1 은 두 통신자 갑순이(이하 갑이라 칭함)와 을들이(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이루어지는 시뮬레이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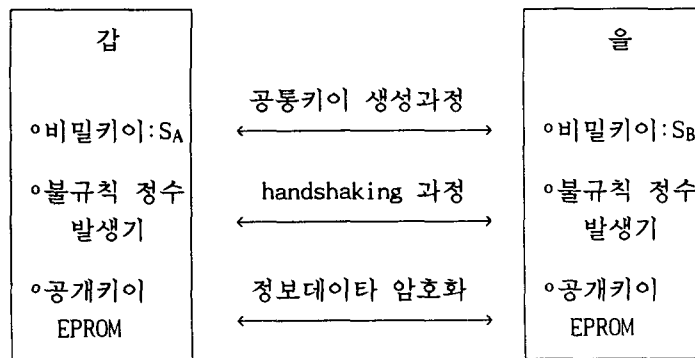


그림 1. 시뮬레이션 과정 선도

##### IV.1 공용키이 생성 과정

- 첫째 과정 :

Si

각 가입자는 비밀키이  $S_i$  를 만들고, 그림 2 의 승산기로 공개키이  $P_i = (a)$  를 구한다. 여기서  $i$  는 가입자를 지칭한다. 예로써,  $S_A = 49 = 2^5 + 2^4 + 1$  이면,

$$a^{49} = R^5(a) \cdot R^4(a) \cdot a \quad \text{이 된다. 여기서 원시원 } a \text{ 는 임의로 선택되었으며,}$$

그 역수는  $a^{-1} = a^{2^m - 2}$  을 이용하여 구한다. 이렇게 구하여 표 2 에 본 시뮬레이션에 사용할 공개키이을 예시하였다. 이는 모든 가입자에게 공개된다.

표 2. 공개키이 EPROM \*

가입자 명	공개키이
갑(갑순이)	700137241688796247 <sub>(10)</sub>
을(을돌이)	588801269445576691 <sub>(10)</sub>
병(아무개)	.
:	:

\* 갑의 비밀키이  $S_A = 510131_{(10)}$   
 을의 비밀키이  $S_B = 480312_{(10)}$   
 원시원  $a = 174D6914D4D3A8A5_{(16)}$

• 둘째 과정 :

갑과 을은 불규칙 정수 발생기를 사용하여  $R_A$  와  $R_B$  를 발생한다.

$$R_A = 3704794018_{(10)} \text{ (비밀)}, \quad R_B = 5013483_{(10)} \text{ (비밀)}$$

다음은  $X_A = a^{R_A}$ ,  $X_B = a^{R_B}$  및  $K_{AB} = (P_A)^{S_B} = (P_B)^{S_A}$  구한후

$$X_A = 9920FC098CB241C_{(16)} \text{ (비밀)}, \quad X_B = 97873D6AC96436E_{(16)} \text{ (비밀)}$$

$$K_{AB} = 2A73A2D5A436E10_{(16)} \text{ (비밀)}$$

$Z_A = X_A \cdot K_{AB}$  와  $Z_B = X_B \cdot K_{AB}$  를 구한다. 그 결과는

$$Z_A = 127CF8AB813E646C_{(16)} \text{ (공개)}, \quad Z_B = 1B706388F8461034_{(16)} \text{ (공개)}$$

이다. 이를 공개된 전송망으로 서로 교환한다.

• 셋째 과정 :

갑은  $Z_{AB} = (Z_B \cdot K_{AB}^{-1})^{R_A} = 1787EE848F599B84_{(16)}$  을 얻고, 을도 같은 방법으로  $Z_{AB}$  를 얻어 공통키이를 생성한다.

## IV.2 고찰

$GF(2^{61})$ 에서 수행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유도된 정규기저 승산기와 제안된 키 분배 프로토콜이 정확하게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GF(2^{61})$  외에  $GF(2^{31})$ 에 대해서도 수행하여 확인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원시 다항식은  $p(x) = x^{31} + x^{30} + x^{26} + x^{25} + x^{24} + x^{23} + x^{21} + x^{19} + x^{18} + x^{17} + x^{15} + x^{14} + x^{12} + x^{10} + x^8 + x^7 + x^5 + x^3 + x^2 + x + 1$ 이다.

보안을 충분히 유지하기 위하여  $m > 1000$ 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고속 승산을 위하여, 1의 수가 최저인 승산행렬을 갖는 정규기저를 발굴하여 사용해야한다. 그리고 채택된 관용 암호시스템에 따라서 생성된 공통키  $Z_{AB}$ 을 적절한 형태로 변환하여 관용 암호시스템의 키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 V. 결론

구현한 D-H 형 공용키 분배 프로토콜은 키관리 센터에서 통신자들의 비밀키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세션키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여러 D-H 형 공유키 분배 프로토콜보다 안전하다. 이를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규기저의 발굴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도 개발하였다. 개발된 알고리즘은 conjugates를 이용하는 minimal 다항식을 구하는 방법으로 기약다항식을 찾은 후 정규기저를 발굴한다. 이 알고리즘에서는 식의 전개에 필요한 벡터들의 다항식을 직접 구하므로 쉽게 기약다항식을 찾을 수 있어 고속으로 정규기저를 발굴할 수 있다.  $GF(2^{61})$ 의 한 정규기저를 사용하여 공유키 분배 프로토콜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한 후 시뮬레이션하여 그 동작 과정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1. M.E. Hellman, "An Overview of Public Key Cryptography," IEEE Comm. Society Mag., Vol.16, No.6, pp.24-32, Nov. 1978.
2. W. Diffie and M.E. Hellman, "New directions in cryptography," IEEE Trans. on Inform. Theory, Vol.IT-22, pp.644-654, Nov. 1976.
3. R.L. Rivest, A. Shamir, and L. Adleman, "On Digital Signatures and Public Key Cryptosystems," Comm. Ass. Comput. Math., Vol.21, pp.120-126, Feb. 1978.
4. J.L. Massey and J.K. Omura, "Patent Application of Computational Method and Apparatus for Finite Field Arithmetic," 1981.
5. C.C. Wang, T.K. Truong, H.M. Mao, L.T. Deutch, J.K. Omura, and I.S. Reed, "VLSI Architecture for Computing Multiplication and Inverse in  $GF(2^m)$ ," IEEE Trans. on Compu. Vol.C-34, No. 8, pp.709-716, Aug. 1985.
6. R.C. Mullin, I.M. Onyszchuk, S.A. Vanstone and R.M. Wilson, "Optimal Normal Bases in  $GF(p^m)$ ," Discrete applied Mathematics, Vol.22, pp.149-161, 1989.
7. W. W. Peterson and E. J. Weldon, *Error-Correcting Codes*, New York Wiley, 1961.
8. 원동호 "GF(2)상의 정규기저를 갖는 원시다항식 분류에 관한 연구" 정보보호 워크샵, 1989.
9. Y. Yacobi and Z. Shmueli, "On Key Distributions," Proc. CRYPTO '89, pp.335-346, 1989.
10. 문상재, 이필중 "키 분배 프로토콜의 제안" 정보보호 워크샵, 1990.
11. 이창순, 백기진, 문상재, "GF(2)상의 최적 정규기저를 갖는 기약다항식의 발굴에 관한 연구," 통신정보합동학술대회 논문집, 제 1권, pp.36-42, 1991.